

2024. 9. 15.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요한복음 John 8:1-11,

제목: 예수를 만난 사람들(43)-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 버림받고 표적이 되다

(표준새번역) 8:1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ESV) 8:1 but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8:2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8:2 Early in the morning he came again to the
temple. All the people came to him, and he sat
down and taught them.

8: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8:3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rought a
woman who had been caught in adultery, and
placing her in the midst

8:4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8:4 they said to him, "Teacher, this woman has
been caught in the act of adultery.

8:5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8:5 Now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women. So what do you say?"

8:6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8:6 This they said to test him, that they might have some charge to bring against him. Jesus bent down and wrote with his finger on the ground.

8:7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8:7 And as they continued to ask him, he stood up and said to them, "Let him who is without sin among you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8:8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8:8 And once more he bent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8:9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8:9 But when they heard it, they went away one by one, beginning with the older ones, and Jesus was left alone with the woman standing before him.

8:10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8:10 Jesus stood up and said to her, "Woman, where are they? Has no one condemned you?"

8:11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8:11 She said, "No one, Lord." And Jesus said,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from now on sin no more."]]

오늘은 다른 설교와 달리 이 본문을 Q&A 형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거나 성경공부 혹은 QT 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대답

✓ Q1. (배경, 관찰) 7:53-8:11 이 성경 원문에는 없고, 후대에 삽입된 부분이라는 주장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읽은 8:1 에 예수님은 올리브산(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7:53 에는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큰 괄호([])로 단락이 열리고, 8:11 절에서 큰 괄호로
단락이 닫힙니다.

(표준새번역) 요한복음 7:53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ESV) John 7:53 [[They went each to his own house
8:11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8:11 She said, "No one, Lord." And Jesus said,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from now on sin no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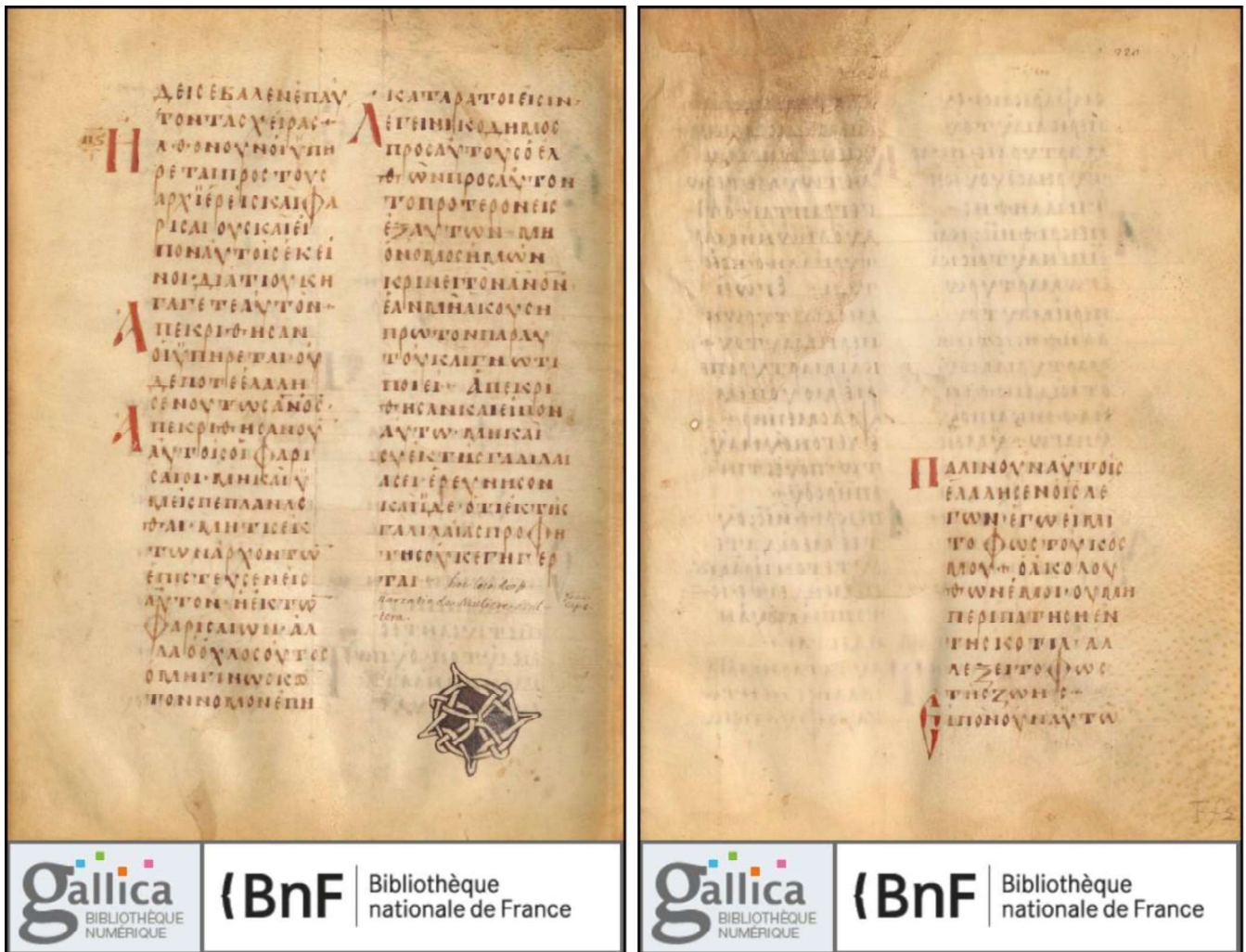
이 큰 괄호의 주석(설명)에 보면, ‘오래된 사본에는
7:53~8:11 이 없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는 학문적으로
‘페리코페 아둘테라 (Pericope Adulterae)’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오래된 사본인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4 세기)과 시내 사본 (Codex Sinaiticus, 4 세기)에는 이 본문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본들에는 이 이야기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5 세기 이후의 사본에는 일관되게 다 이자리에 포함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 본문은 처음에는 없었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넣었다고 보고, 이 이야기는 성경의 본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사본’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좋은 기록매체가 부족했습니다. 양가족 안쪽에 적든지, 갈대의 한 종류인 파피루스를 얇게 펴서 적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록물들이 적어도 2000 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썩고 사라지기 때문에 복사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사본(copy)입니다.

어떤 사본은 보관을 잘 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어떤 사본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본은 옮겨 적으며 정확하게 옮겨 적었지만 어떤 사본은 글자가 틀리기도 했고, 옮겨 적다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면 몇 글자를 더 적어 넣어서 읽으며 이해를 잘 하도록 도와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지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 생활을



시작했고, 300 년이 넘도록 카타콤에서 보던 성경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AD 397 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금의 신약 정경 27 권을 확정하여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없는 사본들은 주로 카르타고 회의 이전에 쓰여진 사본들이며, 카르타고 회의 이후의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었지만, 그 당시 다른 사본에는 이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성경의 내용인지 아닌지 토론을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어거스틴). 특이한 것은 보시는 사진(바티칸 사본)에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요 7: 53~8:11 이 딱 들어갈만한 여백이지만,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채 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경 27 권이 받아들여지고 난후의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카르타고 공의회 이후 많은 교부들과 교회 리더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했고, 이 본문을 인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막절의 분위기와도 잘 맞고, 본문의 메시지는 전후 문맥과도 일치하나다. 즉, 요한복음이 정경이듯이 오늘 본문 7:53~8:11 도 요한복음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오래된 어떤 사본들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해서 성경 읽는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한가지를 덧붙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개정, 표준새번역은 좋은 번역본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시기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 Q2. (관찰) 여자는 여기 끌려와 있는데, 남자는?

8:3 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데려와 가운데 세우고는,

8: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8:3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rought a woman who had been caught in adultery, and placing her
in the midst

4 절, 여자를 고발합니다.

8:4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8:4 they said to him, "Teacher, this woman has been caught in the act of adultery.

그런데 간음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학자들이 여자만 데려온 겁니다.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남자를 죽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자만 데려왔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 절. 율법학자들의 질문의 정당성을 깎아 내리게 됩니다.

8:5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8:5 Now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women. So what do you say?"

오히려 남자는 놓아 주었거나 현장에서 도망갔고, 여자만 데려왔다는 것이 문맥과 율법학자들의 행동에 더 잘 맞습니다. 율법(레 20:10; 신 22:22)을 지키려면 간음한 두 사람 모두를 죽이거나 두 사람 모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표준새번역) 신 22:22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ESV) Deuteronomy 22:22 If a man is found lying with the wife of another man, both of them shall die, the man who lay with the woman, and the woman. So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Israel.

남자가 도망을 갔든지, 혹은 혼자만 풀려났든지 결국 이 여자는 마음 주고,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고, 버림 받았으며,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정교하게 계산된 함정의 미끼가 되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이 여자를 표적삼아서 잡은 것입니다.

✓ Q3. (관찰) 예수님은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가?

5 절,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스비다.

8:5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8:5 Now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women. So what do you say?"

6 절,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때 예수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8:6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8:6 This they said to test him, that they might have some charge to bring against him. Jesus bent down and wrote with his finger on the ground.

7 절, '죄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신 후,

8:7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8:7 And as they continued to ask him, he stood up and said to them, "Let him who is without sin among you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8 절,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8:8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8:8 And once more he bent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보다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행동을 더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모양새입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손가락으로 쓰는 행동'은 출 31:18 을 연상시킵니다.

(표준새번역) 출애굽기 31:18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개를 그에게 주셨다

(ESV) Exodus 31:18 And he gave to Moses,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with him on Mount Sinai, the two tablets of the testimony, tablets of stones, written with finger of God

문맥으로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동을 보여 주신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직접 손가락으로 써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손가락 퍼포먼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내 손가락으로 적어준 율법으로 옥죄고, 정죄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함정을 파고,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세우는 것에도 관심이 없구나! 거기다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나를 시험하면서 정작 율법의 의미와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려고하지는 않구나! 율법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율법을 주신 분의 의도와 율법의 본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 Q4. (적용)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간음, 간통은 죄가 아닌가?

대답부터 하자면, 아닙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그러면 11 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하십니다. 즉 간음은 죄가 분명합니다.

8:11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가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이 분명히 정경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요한복음의 내용이라고 확증해준 어거스틴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과 학자들은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예수님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마 9:2, 막 2:5), 눅 7:48 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여인에게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표준새번역) 누가복음 7:48 그리고 예수께서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하고 말씀하셨다.
(ESV) Luke 7:48 And he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돌을 든 무리들 중간에 서서 두려움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자유를 주셨던 겁니다.

✓ Q5. (적용)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가?

11 절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8:11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8:11 She said, "No one, Lord." And Jesus said,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from now on sin no more."]]

한국어 '정죄(定罪)'라는 단어는 '죄를 확정하다', '죄를 규정하다'는 의미의 한자어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원어는 카타크리노(κατακρίνω)는 '심판하다', '유죄로 판결하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정죄'하는 행동은 사실 율법학자들과 돌을 들고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죄로 규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던 겁니다. 정죄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지 아닌지 분별도 하면 안되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도 죄를 죄라고 분별하고, 죄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교회에 치리가 살고, 교회의 순수성(Purity)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 리더와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해야 합니다. 정죄는 죄를 규정하고 심판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진단은 치료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입니다. 정죄는 죽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진단은 사랑, 회복, 성장을 위해서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행동이며, 그 행동이 공동체와 형제 자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 행동과 그 사람의 죄를 분별하고(진단) 금지시키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리

이 여인은 적어도 사랑하는 남자(비록 외도였고, 간음이었지만)에게 버림받고, 율법학자들의 타겟이 되어 예수를 넘어뜨리는 함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돌을 들고 둘러선 사람들에게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고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고, Second Chance 를 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이용해먹으려고하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받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배신하고 표적삼아 공격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